

금호타이어, 이마트와 마케팅 협력

마트 주유소와 시너지 효과 노려 ... 용인에 타이어 전문 유통점 개장

금호타이어가 이마트와 타이어 마케팅 협력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이마트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는 이마트 구성점 주유소 옆에 타이어 전문 유통점인 타이어프로 구성점을 열었다고 12월14일 발표했다.

타이어프로는 타이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구매 상담도 해주는 특화 유통점으로 국내외 160곳에서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2월 개장한 이마트 구성점 주유소는 마트와 매우 가깝고 셀프 주유 방식을 채택해 일반 주유소보다싼 가격에 기름을 살 수 있어 하루 평균 차량 2400대가 방문하는 등 이용객 수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타이어 영업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제휴를 결정했다.

쇼핑과 주유, 타이어 교체·점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공동 마케팅을 펼칠 계획으로 타이어프로 구성점에 연비 개선용 타이어 등 경제적인 제품들을 내놓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프로 구성점은 대지면적이 495.9㎡로 자동차 4대가 들어가는 작업장과 카페 스타일의 고객대기실, 전시공간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구성점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내 이마트와 연계한 타이어 영업점을 현지에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4>